

# 아름다운 장미꽃 풍경

아름다움의 상징인 꽃은 사람들의 문화정서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특히 향기롭고 빛깔고운 장미꽃은 누구나 좋아하는 꽃들중의 하나이다.

장미는 사랑과 열정, 고상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고 있다. 공화국에서는 여러종의 장미품종을 품종순화시키고 국

가품종으로 등록하였다. 이런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평양시내의 곳곳에 활짝 피어나 오가는 사람들을 반기고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들의 정취를 한껏 돋

구어주고 있다. 평양시에서는 여러 품종의 장미를 원림특지구역들에 심어 수도의 면모를 보다 이채롭게 장식하고 있다. 공원, 유원지들과 려명거

리, 미래과학자거리, 광복거리를 비롯한 시내의 곳곳에 피어난 장미꽃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여준다. 평양의 거리들에 펼쳐진 장미꽃풍경은 서로 돕고 이끌면서 더 좋은 미래를 창조해가는 공화국인민들에게 기쁨과 랑만을 더해주고 있다.

본사기자 리철민



조명철은 1910년대초에 태어났다. 어머니는 조영암이었던 그의 본명을 고향에 있는 려명산의 첫 글자를 따서 려명철이라는 아명으로 지어 불렀다. 그러나 어머니가 애정을 담아 조용히 부르던 아명은 작가의 진짜이름으로 퇴고되었다. 그는 문학에 뜻을 품고 열정을 쏟아부은 열혈작가였으며 미국땅에서 피눈물나는 고향 생활도 맛본 문필가였다. 고학당시 자기가 쓴 작품이 1등으로 당선되었을 때 작품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자 그는 《진주라 천리길》, 《집 없는 천사》, 《락화류곡》을 비롯한 수많은 가사들을 써 내는 것으로 눈물에게 항거해 나갔다. 해방후 서울에서 조명철은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형상한 장막 희곡 《혁명군》(《독립군》)을 창작하여 대절찬을 받았다. 그의 창작적재능은 공화국

의 품에 안겨 보석과도 같이 빛을 뿌리게 되었다. 그는 시, 희곡, 가극문학의 창작, 민족고전작품들의 각색과 유색 등 다방면에 걸치는 창작활동에서 자기의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조명철은 종래의 민요를 현대적미감에 맞게 개작할 결심을 품고 해방전 한란의 상징으로 된 가사들을 새롭게 완성해나갔다. 《법성포배 노래》, 《양산도》 등이 그런 민요들이며 특히 그가 가사를 짓고 그의 안배가 편곡한 민요 《모란봉》은 내용에서나 선율에서나 나무랄데 없는 훌륭한 노래이다. 그는 《조국보위의 노래》, 《압록강 2천리》, 《일록소야 어서 가지》, 《어머니 우리 당이 바라다면》을 비롯한 수많은 가사와 시들도 국보적인 명곡으로 내놓았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신 민경애에 대한 나라인민들의 깊은 동경과 사랑,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

의 감정을 담은 가사를 심혈을 기울여 창작하였으며 이것을 본 작곡가 김옥성이 훌륭하여 그 자리에서 가사에 곡을 붙였다. 이렇게 되어 세상에 태어난 명곡이 바로 《만경대의 노래》이다. 조명철은 《전우》, 《리순신장군》 등을 비롯한 희곡들과 《공위팔귀》, 《바다의 처녀들》, 《금강산팔선녀》 등 가극대본들 역시 손색없이 집필하였다. 공화국에서 주체예술의 대전성기가 펼쳐지던 1970년대 이후 집체창작의 책임을 진 그는 가극 《금강산의 노래》, 《백은 태양아래서》, 《밀림아 이야기하라》, 음악무용극 《두만강반에서의 한해여름》의 창작과 불후의 고전적명작 《한 지위단원의 운명》을 혁명가극으로 옮기는 창조사업에서 특출한 공훈을 세웠다. 김일성상계관인인 그의 작품집으로는 《조명철시집》, 《조명철희곡집》 등이 있다. 김은철

## 학생교복과 가방, 학용품생산에 힘을 넣는다

공화국에서 학생교복과 가방, 학용품생산에 본격적으로 다그치고 있다. 지방공업성, 경공업성의 일군들과 려원단위 일군들, 피복전문가들은 학생교복생산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결린 문제를 풀며 생산지휘를 치밀하게 진행 하고 있다. 평양시피복공업관리국과 황해북도, 라선시를 비롯한 각지의 피복공장들에서는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높이 세운 생산목표를 여김없이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내밀고 있다. 은하무역국과 봉화무역국의

피복생산단위들에서도 공정조작을 합리적으로 하고 여러가지 기술혁신안을 적극 받아들여 교복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소학교 3학년 녀학생들을 위한 여름철교복생선이 결속되어 공급을 시작하였다. 피복공장들에서는 생산한 교복을 학생들에게 입혀보면서 새 학생의 몸에 꼭 맞는가를 알아보고 미흡한 점을 퇴치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정계획을 드림없이 수행하고 있다. 학생가방생산을 위한 투쟁도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평양가방공장, 평성가방공장, 사리원가방공장의 생산자들은 천자식에 배워줄 가방을 만든다는 심정으로 제품의 질과 가공속도를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있다. 평양수지업필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설비들의 정비보강과 함께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탐구도입하고 있다. 본사기자

학용품생산단위들에서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동북학용품공장과 소나무학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질 좋은 학용품을 더 많이 만들 일념으로 생산정성화의 동음을 힘차게 울리고 있다.

평양수지업필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설비들의 정비보강과 함께 제품의 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탐구도입하고 있다. 본사기자



## 아름다운 칠보산의 내경대

칠보산의 내칠보구역에 위치한 내경대는 내칠보의 안쪽경치를 가까이에서 둘러볼수 있다고 하여 내경대라고 부른다. 내경대는 승선대와 탄금대사이 금강골에 위치한 곳으로서 멀리로는 망월대, 무희대와 함께 넘쳐나게 담은 밤그릇같은 반두암, 《팔만대장경》을 꽃아놓은듯한 서책봉, 피아노바위, 레몬암, 가마바위 등이



한눈에 안겨오고 가까이로는 타종암과 종각봉, 유람선바위를 비롯한 한 수 많은 기암괴석을 부감할수 있는 곳에 있다. 본사기자

## 백암쥐토끼

백암쥐토끼는 쥐토끼과에 속하는 짐승이다. 몸길이는 15~20cm이고 몸질량은 130~160g이다. 몸의 크기는 큰 집쥐만 하다. 중등이는 몽톡하고 귀는 작고 둥글며 꼬리는 없다. 앞뒤다리는 짧으며 그 길이는 비슷하다. 발바닥에는 털이 없고 발바닥뒤편이 드러났다. 몸의 등쪽은 붉은밤색이고 아래편은 재빛흰색이다. 백암군의 높은 지대는 이끼덮인 바위들이 많고 무성한 숲과 풀로 뒤덮여있어 백암쥐토끼들의 생존에 아주 유리하다. 백암쥐토끼는 주로 돌짜이나 나무뿌리에서 사는데 저녁 해질무렵



## 사화

### 속떡에 잇든 사연 (1)

사동구역 리현리에 속풀이 라고 부르는 마을이 있다. 새싹이 파릇파릇 울드는 봄이 오면 푸른빛에 은빛이 도는 속풀이 마을의 들판과 밭두둑들에 뒤덮여 봄철은 물론 여름, 가을까지 짙은 속향기속에 묻혀있는 마을이다. 이 마을을 속풀이라고도 하고 속떡을 많이 빚어먹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떡설이라고도 하여왔는데 여기에는 속으로 떡을 빚어먹게 된 한 녀인에 대한 이야기가 잇겨져 있다. 아득히 먼 옛날 속풀에 솔메라는 처녀가 살고있었다. 솔메는 아련하면서 어여쁘게 생긴 곱고슬과 달리 마음은 매우 강직하였다. 그가 처녀꼴이 잡히기 시작하자 아침이슬을 머금은 꽃망울처럼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반하여 사방에서 그의 집 문돌쩌귀에 불이 일도록 청혼이 들어왔다. 하지만 솔메는 도리머리를 저으며 모든 청혼을 거절하곤 하였다. 부모들이 그에게 좋은 혼인감을 추천하고 꾸지람할 때 마다 솔메는 방긋 웃으며 《저와 한생 뜻을 같이해야 하는 사람인데 제 마음에 들어야 할게 아니오이까? 부모님들은 넘버마소이다.》라고 대

답하곤 하였다. 이 시기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있던 외적이 속풀로 쳐들어온다는 기별이 전해졌다. 이 소식에 접하자 속풀마을 좌상인 솔메 아버지는 마을장정들과 함께 싸움 준비를 갖추어가지고 외적을 맞받아 싸울러로 달려갔다. 솔메는 마을의 부녀들과 함께 전장으로 보낼 식량과 음식을 마련하느라 몸을 아끼지 않고 분주히 뛰어다녔다. 그러던 어느날 해질무렵이었다. 저녁연기가 피어오르는 마을의 동구길로 전령군사(령을 전달하는 군사)가 탄 말이 요란한 말발굽소리를 내며 달려오더니 솔메네 집앞에 멈춰섰다. 《좌상어른의 소식을 가지고 왔소이다.》 부엌에서 밥을 짓던 솔메는 다급하게 대문을 두드리며 웨치는 그 소리에 가슴이 섬적 하였다. 무슨 일이 생기게 아닐까. 그는 불안한 생각이 갈마들었으나 마음을 다잡으며 문을 열고나섰다. 문밖에는 부리부리한 눈과 무뚝한 코, 흰철한 키와 빠그린 어깨로 하여 첫눈에 현현장부로 안겨오는 낯모를 군사가 서있었다. 솔메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받아들고 황황히 글줄을 더듬었다. 《솔메야! 이 아버지를 죽인 외적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리고 이 소식을 가지



고가는 범이 좋은 젊은이이다. ...》 《아버지!...》 솔메는 아버지를 목메어부르며 마당에 주저앉아 오열을 터뜨렸다. 한동안 설문을 토하고나서 솔메는 피로 얼룩진 아버지의 서신을 다시 보고 또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그의 눈앞에는 아버지의 엄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곧 약해지는 마음을 다잡았다. 《아버지가 남긴 부락을 절대로 잊지 않겠사옵나.》 그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하며 추추지는 눈물을 가까스로 참아냈다. 잠시후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말없이 마구간으로 들어간 솔메는 《호오옹~》 하